■고향정담 - 권선홍 (추밀공파 38세,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고향 풍경

지난달 종보에 고향을 생각하며 올린 글 (고향 단상)의 속편이다. 앞글은 고향의 인정에 관한 글인데, 하나는 고향 아저씨의 고백.

자기 집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누구네 집이든지 가서 도와 주셨단다. 대부분의 시골 분들이 그리하셨듯이. 그런데 예전엔 들지 않았는데 요즈음에 와서 드는 생각, 스스로 나쁘다고 여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드는 건 이거 한 시간 일을 하면 얼마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소개하며, 전통 사회와 근대 자본주의와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보았다.

또 하나는 인정 많은 시골을 얘기할 때 흔히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고추가 어느 집에서 농사지은 것인지까지도 알고 있는 정도였다고 소개하였다. 한마디로 전통 사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훌륭한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고향 풍경에 대해, 그리 특별한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얘기하려 한다.

윗글에서 말했듯이 고향에는 전기가 없어 석유 등잔불이나 호롱불로 불을 밝히며 살았다. 라디오도 없어서, 뒤란 살구나무에 전파 수신장치를 한 광석 라디오로 저녁식사 후 잠시 뉴스나 연속극을 듣는 정도였다. 따라서 바깥 세상이 아주 멀게만 여겨졌다.

그런데 그 어둡기만 하던 등잔불 밑에서 공부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환한 전기불 아래서 공부하면서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하였다.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게 건강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보다 많다는 보도를 접하였는데,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등 몸을 많이 움직여 전기 사용을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몇 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고, 빨래는 주로 우물에 가서 하였다. 우물터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곳이기도 하였다.

여름철에는 저녁밥(주로 보리밥)을 먹고나서,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모기불을 피워 모기를 쫓으며 온 집안 식구들이 더위를 식히기도 하였다. 여름 밤하늘의 은하수나 쏟아질 듯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먼 훗날 나는 무슨 일을 할지 걱정도 하거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무서워하는 공상도 하였다.

가을철 추수가 다 끝나면 집집마다 이엉을 엮어 지붕을 갈았다. 대부분 초가집이라, 올해 안채를 하면 이듬해 사랑채를 하는 식으로 번갈아 하였다. 수수나무로 엮어서 만든 울타리도 해마다 새로 갈아야 했다.

또한 해 질 녘이 되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데, 이 또한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정겨운 풍경이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집을 사고 팔 때 집 자체보다는 집 주위에 있는 과일나무 값을 더 쳐주었다는 대학 시절 은사님 말씀이 생각난다. 시골에서 집 지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땅을 다진 후 주춧돌을 놓고 기둥과 대들보, 흙벽과 방구들 등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갔다. 어렸을 때 익히 보았던 풍경이다. 따라서 은사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물론 기와집은 다르겠지만, 초가집은 별 큰 가치가 있을 리가 없었다. 오늘날의 집 개념과는 거리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생수준은 매우 열악하였다. 당시 변소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러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모기나 파리 등과 공생하며, 살아갔다. 휴지도 없어 비료푸대나 신문지를 사용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면서도 변소의 내용물은 숙성시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거름으로 사용하는 곧 생태계의 순환구조를 잘 연계시키며 살아갔고, 따라서 환경오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야말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자랑스러워하던 시절이었다.

고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도시생활을 시작했는데, 도시 살면서 늘 연탄가스 공포감 속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당시엔 연탄가스로 죽는 일이 많았고, 실제로 커다란 뉴스거리였다. 방학 같은 때 고향집에 가면, 아! 오늘은 연탄가스 걱정없이 잠을 잘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단잠을 잤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고향을 생각하면, 한겨울 밤새 눈이 내려 온 동네가 고요한 눈 세상이 된 모습이 떠오른다. 마음까지도 희고 깨끗해지는 느낌.. 동네 친구들과 따스한 햇살을 즐기며 고드름을 따먹기도 하던 시절.

그러나 가장 그리운 것은 바로 5월 말에서 6월 초의 고향풍경이다. 모내기가 한창일 때다. 농업이 천하의 큰 근본이었던 시절…. 권농일도 있었는데 어렸을 적엔 6월 10일이었다. 이 무렵의 고향은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서서히 풀리고 점차 온기를 품어가면서, 공기까지도 데워지며 빵빵하게 된다. 바로 공기가 적당히 따듯해져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할 저항력까지 생기는 때다. 물론 물과 같이 큰 저항력은 아니지만, 걸어가면 느낄 정도였다. 신작로에서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바로 고향집이 보였다. 왼쪽 큰길로 빠졌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오른쪽 샛길로 접어들면 한쪽엔 산과 밭이 있고 다른 쪽엔 논이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공기의 저항력을 온 몸으로 느끼며 행복해하였던 고향의 맛을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아! 그리운 내 고향.

서울청장년회 제10대 제11대 회장 이취임식 거행

떡케이크 절단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권정호 신임회장

권승호 전 회장

서울청장년회 기 전달

서울청장년회 제10대 제11대 회장 이취임식이 11월 8일 저녁 19시 서초구 내 몸愛황칠(식당)에서 권해옥 회장과 권기욱 서울청장년회 제8대 회장(대종회 부회장), 권혁창 제9대 회장(대종회 감사), 권오준 감사, 권홍태 감사, 권기성 대종회 이사, 권경탁, 권순길, 권태왕, 권영준, 권영진, 권오준, 권오익, 권정찬, 권순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거행되었다.

먼저 제10대 권승호 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부족한 사람을 도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권순용 사무국장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여러분 도움 덕분에 회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특히 전국 청장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여러 회원들 중에 권기성 회원이 특별히 생각난다. 맨발로 뛰어주고 끝까지 애써 주셔서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했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차기 회장은 서울청장년회를 예전처럼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후손으로서 백의종군하여 미력이나마 돕도록 하겠다"고 이임사를 마쳤다.

이임사를 마치자 권혁창 9대 회장은 서울청장년회를 대표하여 권승호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권승호 전임 회장은 신임 권정호 회장에게 서울청장년회 깃발을 전달했다.

권정호(추밀공파 38세, 변호사) 제11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워낙 바빠서 많이 나오지 못했다. 권순용 사무국장이 삼고 사고초려하며 차기 회장을 부탁하는 그 헌신적인 열정에 감동해서 계속 고사하고 뿌리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힘들더라도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자기가 먼저 베풀고 밀어주었으면 한다. 여러분과 손잡고 하면 서울청장년회의 전성기 시절을 회복하리라 믿는다. 어려운 시기에 전임 회장이 맡아서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단히 수고 많았다. 감사하다. 저는 변호사로서 민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안동권씨라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선배 회장들이 쌓아 놓은 명성과 권위와 신용에 금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부족하지만 회원 여러분께서 격려해주고 많은 조언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취임사를 가름했다. 이날 신임 권정호 회장은 수석부회장에 권순용, 사무국장에 권영일을 신임 임원으로 각각 임명하고 권오준 감사와 권홍태 감사는 유임했다.

권해옥 대종회 회장은 축사에서 "우선 권승호 회장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애를 썼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체육대회를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권승호 회장과 권순용 사무국장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린다. 권정호 신임 회장 취임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안동권문은 여야도 없고 지역도 없다. 오직 시조 태사공 한 자손이 있을 뿐이다. 모두 한 핏줄이다.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우리 안동권문이다. 신임 권정호 회장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100만 족친을 위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안동권문의 주춧돌이다. 권정호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고 화합하여 이끌어 가야 한다. 대종회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 서울청장년회가 더욱 발전하고 융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욱 제8대 회장은 "신임 권정호 회장을 중심으로 서울청장년회가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창 제9대 회장은 "안동권문이 있는 한 청장년회는 존재할 것이다. 이전 회장들의 쌓이고 쌓인 업적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영상 초대 회장은 지방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똑같다면서 전 회장은 수고 많았고 신임 회장에게 서울청장년회를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축사가 모두 끝나자 권해옥 회장, 권기욱 제8대 회장, 권혁창 제9대 회장, 권승호 전임 회장, 권정호 신임 회장 등은 축하의 떡을 절단하며 서울청장년회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했다.

제10대 제11대 이취임식이 끝나자 회원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권오익 MC의 사회로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권정호 신임 회장은 회원들에게 취임 기념품으로 넥타이핀과 안동권씨 뱃지, 커프스 버튼(cuffs button)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안동권씨 부정공파 정기총회 및 파조 추향제 봉행

지난 10월 17일 오전 11시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늘곡재사에서 70여명의 족친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재규 사무국장은 개회선언을 하였다. 이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에 대한 망배, 참석자 상견례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병윤 회장은 인사말에서 족친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한 뒤, 우리 모두는 조상의 훈업을 더욱 빛내고 내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보본지심과 숭조애족사상을 고취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오서 고문의 축사가 있었고, 권영종 감사의 감사보고와 권재규 사무국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정기총회에서는 권영도 족친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신임 권영도 회장은 권세영 감사를 유임시킴과 동시에 권수원 회원을 신임감사에 임명하였다.

총회를 마친 후 70여명의 회원들은 파조 단소로 자리를 옮겨 권영종 찬자의 홀기에 따라 엄숙하고 질서 있게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권기승, 아헌관에는 권오순, 종헌관에는 권병윤으로 각각 분정하였다.

취재 권혁세

복야공파 가일 입향조 추향 봉행

복야공파 가일 입향조(휘 항, 18세 참의공) 등 5위에 대한 추향제가 10월 31일 30여명의 참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에는 권종만, 아헌관에는 권대철, 종헌관에는 권혁세가 각각 담당하였다.

취재 권혁세

2019년도 종보대금 납부 안내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2019년도 종보대금 지로용지**를
지난 9월호 종보와 함께 구독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종보대금 연락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종보 대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 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광고, 독자투고, 구독 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입니다.
종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 02)2695-2483~4 FAX 02)2695-2485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안동권씨 대종회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종회